

투데이 칼럼

기후변화시대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CO2를 줄여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문민식
장수군 산림복지과장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이다. 이 제도는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된 양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8년 3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총 33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만 1천 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인 26,960tCO2를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사업대상성 검토 및 등록을 거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조한다.

독자제언

현관문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자

며칠 전 '화재경보기가 몰카,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라고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도둑질을 한 것이다.

컴퓨터 키보드도 자주 사용하는 자판은 글자가 지워지면 안 된다. 현관문 번호도 자주 누르는 번호를 자세히 봐 보자. 아예 안 쓰는 번호랑은 색깔이 다를 것이다.

독자제언

'더치리치'로 자동차 개문사고 예방

자동차 개문사고란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뒤따르던 차량이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게 된다. 그때 목을 약간만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시야각이 넓어지게 된다.

사설

로컬 푸드 육성 3개년 계획에 기대를

전북도가 로컬 푸드와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주목이 된다. 2020년까지 3천6백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 지원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은 반드시 성공해 모범사례로 우뚝 서야만 한다. 그러려면 도내 농산물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겠다.

농지 축소 문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북도가 농촌 현장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엔 157평방 킬로미터의 쌀 재배 농지를 축소해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배 농지 축소 방침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이 종종 메이커지만 도내 농가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